

사진: 크레이 칼슨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성전은 2003년 9월에 캘리포니아 주의 다섯 번째 성전으로 헌납되었다.

힅클리 대관장에 의해 헌납된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성전

크레이 칼슨

2003년 9월 14일에, 수천 명의 교회 회원들이 샌버너디노 산을 배경으로 들어선 교회의 116번째 성전인,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성전 헌납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고든 비 힅클리 대관장이 성전을 헌납했다. 그 자리에 부인인 마조리 힅클리 자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인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와 북미 서부 회장단이 함께 배석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전세계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지어졌나이다.” 힅클리 대관장이 헌납 기도를 드렸다. “성도들의 신앙과 충실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 축복하셨듯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레드랜즈 성전은 대관장단에 의해 2001년 4월 21일에 발표 되었다. 건축은 2002년 3월 11일에 시작되었다.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16개월 가량의 기간이 들었다.

“우리는 콘크리트 기초로부터 모로나이 상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부인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제리 퀸 장

로가 말했다. “성전을 갖는 것은 마치 뒤뜰에 하늘 정원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2003년 8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성전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만천 명에 이르는 자원자들의 도움으로 십사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을 돌아보며 그 목적과 의식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성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영적인 이



사진: 제리 퀸

고든 비 힅클리 대관장과 부인 마조리 힅클리 자매가 2003년 9월 성전 헌납 의식 중에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성전 머릿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있다.

[보조 소식] 성전 건축 및 개보수 사업 계속

2003년 8월 15일
에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 참담 위에 모로나이 천사상을 올리는 것을 기념하는 간단한 의식을 보고자 덴마크 교회 회원들이 코펜하겐 시내 중심에 모였다. 성전 건립은 2004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로나이는 그 자신보다 지극히 위대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우리 위에 높이 서 있을 것입니다.” 유럽 중부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말린 케이 젠슨 장로가 기념식에서 말했다. “그는 회복된 복음과 이곳 성전에서 행해질 수 있는 모든 진리와 의식과 권능의 상징입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성전을 위한 기공식이 행해졌다. 당시 북미 서부 지역 회장단의 제1보좌로 봉사하던 듀엔 비 제라드 장로가 성전 부지를 헌납했다. 헌납 이후, 교회 지도자들은 가족 및 기타 귀빈들과 함께 안전모를 쓰고 첫 삽을 떴다.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성전 지역은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5만여 명의 교회 회원들을 위한 것이다. 이 성전은 현재 운영 중인 프레즈노,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레드랜즈, 샌디에이고 성전과 계획된 새크라멘토 성전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7번째의 성전이 될 것이다.



모로나이 천사상이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의 참담 위에 세워지는 현장에 서있는 지역 지도자들

브라질 상 파울루 성전이 2004년 2월까지 개보수를 위해 폐쇄되며, 사모아 아피아 성전이 2003년 7월에 원래 건물이 화재로 파괴된 후에 현재 재건축 중이다. (“교회 소식: 재건축되는 사모아 성전”, 리아호나 2003년 12월호 참조) 다음과 같은 성전이 추가로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이다: 나이지리아 아바, 가나 아크라, 브라질 쿨리티바, 뉴욕 해리스, 핀란드 헬싱키, 우크라이나 키예프, 뉴욕 맨하탄, 파나마 파나마 시티, 텍사스 샌 안토니오. ■

기사 제공: Church News

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공개된 성전을 돌아본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한 가톨릭 교회에 다니는 패트리샤 굿맨이 말했다.

“이웃들이 많은 도움과 이해를 보여 주었습니다.” 성전 일반 공개 위원회 위원장인 더글라스 글라우스가 말했다. 헝클리 대관장은 헌납 기도 중에 이에 관해 언급했다. “이 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우호의 영에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그러한 영이 증가하여 이웃과 화목하게 살며, 그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 더욱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되며, 회원 자격이란 외투가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여 주기를 간구하옵니다.”

레드랜즈는 오랫동안 교회에 우호적인 지역이다. 브리감 영은 솔트레이크시티와 산페드로 만(현재의 롱 비치)의 태평양 연안 항구 사이에 여러 중간 기착지를 설립하기를 원했다. 1851년 여름에 교회의 두 사도이던 에이머서 라이먼과 찰스 시 리치 장로가 브리감 영 대관장의 위임 하에 토지를 구매하려 캘리포니아로 파견되었다. 이때 437명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로 구성된 이주자들이 함께 갔다.

1851년 10월 1일에 그들은 안토니오 마리아 루고에게 란초 샌 버너디노로 알려진 3만 5천 에이커의 땅을 구입했다. 구매한 땅 중에는 현재 레드랜즈 성전이 세워진 부지도 포함되었다.

헝클리 대관장은 새로 건립된 성전을 헌납하며 이 오랜 관련성에 대해 언급했다. “아버지시여,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이방인이 아닙니다. ... 최근에 이곳에서 당신의 사업이 더욱 굳게 뿌리를 내렸나이다.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당신에게 나아와 당신의 길을 배우며 당신의 뜻과 계명을 행하도록 하옵소서.” ■

넬슨 장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헌납

2003년 8월 25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내린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중앙 아시아를 방문한 첫번째 십이사도가 되었다. 그는 방문 중에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최근에 교회가 세워진 두 나라를 헌납했다.

또한 넬슨 장로는 유럽 동부 지역 회장인 더글라스 엘 콜리스터 장로를 대동하고 정부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방문하고 한 지역 방송사와 회견을 가졌다.

90명이 넘는 알마티 지부의 회원들과 구도자들이 최근에 임대한 집회소에 모여 넬슨 장로의 간증과 권고의 말씀을 들었다. 넬슨 장로는 가족에 관해 그리고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오는 축복에 관해 말씀했다.

멀리 떨어진 여러 도시에 사는 회원들이 모임에 참석하고자 13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오기도 했고, 한 회원은 이웃 나라인 타지키스탄에서 오기도 했다. 이 모임은 교회가 3년 전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나라인 카자흐스탄에서 교회 회원들이 가진 가장 큰 모임이었다. 알마티 지부는 2001년 7월에 콜리스터 장로에 의해 조직되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넬슨 장로는 콜리스터 장로 및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도시에서 눈에 잘 띄는 지형인 콧 토베(카자어

로 “푸른 언덕”) 정상에 올랐다. 멀리 텐산 산맥의 눈 덮인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 서고, 아래에는 알마티 시가 펼쳐진 가운데 넬슨 장로를 비롯한 무리들은 숲 속에서 만났다. 이 곳에서 1999년 11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이뤄진 침례 장소와 현재 교회 건물이 내려다 보였다.

넬슨 장로는 카자흐스탄을 헌납하며 “참빛에 대한 굶주림과 결합된,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영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고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자, 동트는 햇살이 도시를 비췄다. 인구 천오백만 명의 국가에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 후 넬슨 장로와 콜리스터 장로는 인접한 국가인 인구 오백만 명의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수도, 비슈케크로 차를 타고 향했다. 최근에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던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외무장관인 아스카 아이트마토프 장관은 8월에 키르기스스탄 국가의 탄생을 기리는 2,200주년 기념 행사에 넬슨 장로를 초대했다. 넬슨 장로는 국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슈케크, 추이 오블라스트 지사 등과 모임을 가졌다.

방문 중에 넬슨 장로는 콜리스터 장로 및 기타 지도자들과 함께 비슈케크 중심부의 우정 공원에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을 헌납했다. 그들은 청명한 하늘이 내려보며 맑은 새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아침에 상록수로 둘러 싸인 곳에 함께 모였다. 성스러움이 함께 하는 분위기 속에서 넬슨 장로는 기도를 드렸다. 헌납 기도 중에 “과수원과 포도원이 축복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가족들이 늘

어나며, 이 나라의 천연 자원들이 이 백성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를” 간청했다. ■

2003년 9월 13일자 Church News에서

전세계 어린이들 초등학교 창립 경축

대럴린 트로스트

초대 초등학교 회장인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는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는 나라”(교리와 성약 64:33)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1878년에 유타 주 파밍턴의 “돌 교회”에서 교회의 가장 어린 224명의 남녀 어린이들이 참석했던 조직이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백만 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지난 2월에 전세계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역사적인 방송이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전세계 어린이들과 지도자들이 연중 내내 초등학교 조직 창립 125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구름이 약간 낀 따뜻한 날에 스웨덴 스톡홀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기념 행사로 “선교사 풍선”을 만들어 날렸다. 어린이들이 헬륨을 가득 채운 풍선에 다음 내용이 적힌 쪽지를 매달았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입니다. 우리는 올해 초등학교 125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초등학교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를 위한 조직입니다. 이 쪽지를 보셨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명, 어린이의 이름과 교회 주소)

핀란드 쿡코라 부근의 일리비에스카에 사는 한 가족이 발틱 해를 지나 40km를 날아온 풍선을 발견했다. 가족은 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숲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은 풍선을 발견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그 가족의 편지를 받고 매우 즐거워 하며 답장을 보냈다.

불가리아 소피아 지방부는 125주년 기념 행사 및 방송을 기념하기 위해 주변 도시를 위한 초등학교 파티를 주최했다. 어린이들은

지도: 토마스 차일드





스웨덴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125주년을 기념하여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풍선에 매단 쪽지에는 초등학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크래커와 캔디로 성전을 만들고, 게임을 하며,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었다.

불가리아 소피아 선교부 선교사들은 구도자와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그 활동에 참석하게 했다. “우리 구도자의 어린 여자 아이는 집에 돌아가는 동안 줄곧 모든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며 그 활동과 어린이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고 재잘거렸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선교사 웬디 자매가 말했다. “이 어린 6세 소녀는 그 다음 주 일요일에 교회로 어머니를 데려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가 이와 같은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무척 감명 받았습니다.”

브라질 상 파울루 북 스테이크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지도자들은 스테이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장기 경연 대회를 하는 것으로 125주년을 축하했다. 형형 색색의 풍선과 반짝이는 배경으로 장식한 무대에서 온갖 의상을 차려 입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지도자들과 어린이들로 이뤄진 청중 앞에서 춤추고 연극하고 노래했다. 모임 순서가 끝난 후에 모든 어린이들은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단으로부터 간단한 다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받았다.

가나 아크라에서는 가나 아크라 라테비오 코시에 스테이크의 어린이 170명이 초등학교

축하를 위해 자기 가족의 4대 조상 가계도를 만드는 가족 역사 활동에 참여했다.

연초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스테이크 웨이크 포레스트 와드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전세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보내온 네모 장식들로 누비 이불을 만들었다. 웨이크 포레스트 와드 초등학교

회장인 주디 도니는 와드의 어린이들이 전세계 다른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연결되도록 돕는 활동을 기획했다. 외국과의 연락은 지역 회원들과 친지들을 통해 이뤄졌다.

도니 자매는 다른 나라 어린이들에게 누비 이불을 장식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 관한 것이나 살고 있는 곳, 복음에 대한 간증, 초등학교를 좋아하는 이유 등이 담긴 네모 장식을 만들어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전세계 여러 지역의 어린이들로부터 52개의 장식을 받았다.

“하루는 타히티에서 정성 들여 장식해 보낸 무용수 인형과, 남아프리카에서 보내온 코렐소 장식품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도니 자매가 말했다. “또 어떤 날은 한국 어린

이 세 명이 생명 나무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족이 성전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받았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분출하는 화산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 코알라가 그려진 직조물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서 받았습니다. 네브레스카의 한 어린이는 나부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가는 물몬 트레일과 네브레스카 윈터 쿼터스 성전을 수놓은 지도를 보내왔습니다.

누비 이불은 후에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콜린 케이 맨러브 자매에게 증정되었다. ■

기사 제공: Church News



사진: 맨러브 자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 와드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창립 125주년을 맞아 초등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누비 이불 주위에 둘러서 있다.

준비성을 시험한 정전

손 디 스탈

2003년 8월 14일에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정전 사태는 개인 및 가족의 준비된 상태를 시험한 사건이었다.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은 며칠 간은 재난이 전혀 예기치 않게 여러 형태로 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정전 사태는 오후 늦게 발생하여, 뉴욕 주

와 인근 뉴 잉글랜드 대부분 지역을 삼키고, 서쪽으로 오하이오 주와 미시간 주로 퍼져, 온타리오에 이르렀다. 일부 지역은 전력이 한 시간 내에 복구되었지만, 그 외 다른 지역은 거의 삼일 동안 전기가 차단된 채 지내야 했다.

이 지역 스테이크장들은 전기가 끊겨 가정 비상용품에 의존해야 했을 때 대체로 잘 견



교회 회원인 리안 라시오포의 개인적인 준비에 대한 내용이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집 기사로 다뤄졌다.

며났다고 말했다.

“정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시간 그랜드 블랑크 스테이크 블루 워터 와드의 제임스 카스키 감독이 말했다. “정전이 된 지 몇 분 후에 저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연락하여, 각 가족과의 음성 통화, 미망인, 어린이,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 72시간 비상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스테이크장들과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목격한 사실은 회원들 사이에 평온함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와드에서 정전으로 인한 공포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평온이 준비된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카스키 감독이 말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전 사태는 5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전기 관련 사고였다. 뉴욕 같은 큰 도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작동이 중단된 지하철에서 내리거나

고층 건물에서 계단을 간신히 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맨하탄에서 일하는 많은 교회 회원들 가운데, 집까지의 거리가 30~50 킬로미터나 되는 일부 회원들은 뉴욕시에 있는 한 스테이크 센터에서 밤을 보냈다. 일부 도시 방문객들도 정전으로 인해 전자 호텔 키가 작동하지 않자 스테이크 센터에서 밤을 보냈다.

미시간 디트로이트 지방부 그랜드리버 지부에서 두 자녀를 둔 한 독신모가 미망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비축해둔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고 돌봤다. 그녀는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웃집을 방문하여 음식과

도움을 제공했다.

가정 비축은 회원들 사이에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 *Toronto Sun* 지는 최근호에서 가정 비축 프로그램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토론토 회원, 리안 라시오포와의 인터뷰 기사를 특집 기사로 게재했다.

온타리오 토론토 스테이크 돈 밀스 와드 감독인 실바노의 부인인 리안은 교회가 재난에 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안은 일년 동안 9명을 돌볼 수 있는 식품 저장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설명했다. ■

2003년 8월 30일자 Church News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2003년 한해 동안 세계 각지의 말일성도들이 제각기 그들 나라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기념일을 축하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회가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날 회원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교회가 내디딘 첫 발자취들을 축하하고 있다.

선교사가 첫발을 내디딘 후 홍콩의 150년

1852년 10월 24일에 호세아 스타우트와 제임스 루이스, 찰맨 던컨은 아시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유타 주 페이슨을 떠났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하와이와 쿡 아일랜드를 거쳐 홍콩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150년 전에 첫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홍콩항에 도착했다.

1853년 4월 27일, 여행을 시작한 지 185일 만에 이 세 선교사는 홍콩항에 도착했다. “온갖 직업의 사람들이 탄 중국인 배들이 지나가며 자신들의 재능이나 상품을 팔려고 했다.”라고 스타우트 장로는 일기에 기록했다.

1851년에 시작되어 1864년까지 지속된 태평 천국의 난으로 인해 선교사들은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홍콩에 머물렀다. 열기와 습기로 숨이 막힐 정도였지만, 마침내 집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어 장벽이었다. 스타우트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마치 음악처럼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구분되는 소리에 여러 다른 뜻들이 있다. ... 그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것이 무척 어려웠고 교사 없이는 전혀 불가능했다.”

불행하게도, 세 선교사들은 교사를 둘 형편이 못되었기에, 4개월 후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거의 100년이 지난 후인 1950년 2월에 선교사들이 홍콩으로 되돌아 왔지만, 일년 후에 한국 전쟁 때문에 철수를 해야 했다. 1955년에 선교부가 재개되었고, 그 후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홍콩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호세아 스타우트의 증손자인 아담 스타우트가 중국 홍콩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증조 할아버지가 185일 걸려 여행한 거리를 스타우트 장로는 유타 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에서 홍콩 선교부까지 여행하는데 단지 16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스타우트 장로도 증조 할아버지가 오래 전에 그랬던 것처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을 떠났다.

지난 50년 간 홍콩 지역에서 사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봉사에 왔다. 일부는 선교 부장으로 홍콩에 되돌아 왔다. 1950년부터 홍콩에서 봉사한 17명의 선교부장 가운데

12명이 젊은 선교사로 홍콩에서 봉사했고 선교부장의 부인 두 명이 젊은 선교사로 홍콩에서 봉사했었다. 현재 홍콩 선교부의 선교부장인 테트합 웡은 중국계이며 그의 아내 와이무이 아멜라 예웅은 홍콩에서 나고 자랐다.

현재 홍콩에는 39개의 집회소에서 21,000명의 회원들이 모임을 갖는다.

100년 전에 헌납된 러시아

100년 전인 1903년 8월 6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프랜시스 엠 라이먼 장로와 그를 수행하던 선교사 조셉 제이 캐넌 장로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여름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러시아를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했다. 3일 뒤인 1903년 8월 9일에 두 번째 헌납 기도가 모스크바 크레믈린궁 성벽 외곽에서 드러졌다.

당시 러시아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한 캐넌 장로는 러시아의 사회 현황 및 희망을 기록했다. 그는 1903년 8월 27일자 *Millennial Star*지에 기고한 기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언젠가 자유가 올 것이다. 그 날이 피흘림과 혁명의 공포 없이 꾸준히 다가오기를 바란다.”

불행하게도, 러시아인들은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 수많은 피흘림과 혁명을 겪어야 했다. 세계일차대전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3년 간의 처절한 내전이 뒤따랐다. 이후 1930년대의 조세프 스탈린의 숙청으로 대표되는 70년 간의 소련 공산당 독재가 이어졌다. 이 숙청을 통해 수 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처형되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 넘겨졌다.

소련 연방이 붕괴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라이먼 장로가 모스크바에서 드렸던 두 번째 기도가 이뤄지고 있다.



한 모스크바 지부에서 초등회 시간에 걸리나

간초로바가 안톤 모로조비(중앙)와 티모르 쉴론스키를 도와 주고 있다. 러시아는 100년 전에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되었다.

“[라이먼 장로는] 신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진리를 찾고자 마음을 돌이키도록 간구하며, 주님께 지혜와 신앙이 가득한 종들을 보내 러시아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도록 간청했다”고 캐넌 장로는 적었다.

오늘날 러시아어를 말하는 선교사들이 현재 국왕들이 통치했던 국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 돌아서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만오천 명의 회원들이 있다.

“여러분이 모두 이곳에 있는 것을 보니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러시아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중앙 종교 협회장인 블라디미르 에이 네치포로프가 최근에 모스크바에서 경기를 가진 유타 출신 선수들에게 말했다. “20년 전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2002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도 모스크

바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에서의 교회 발전에 경의를 표한 바 있다. “제가 모스크바에 와서 이와 같은 청중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그는 모스크바 코스모스 호텔에 모인 약 2,200 명의 회원, 선교사, 구도자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라고 말씀했다.

교회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7월의 한 주일에 모스크바의 레치노이 지부에서 지부장단의 한 보좌인 세르게이 코제미아킨 형제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신앙개조에 대해 가르쳤다. 한편, 다른 교실에서는 장로 정원희 제2보좌인 바기 바바얀이 정원희 회원들에게 해야 할 바를 촉구하고 있었다.

“오늘은 이번 달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50주년을 기념하는 남아프리카

시 케네스 파우리는 1950년에 남아프리카 크루거스톱에서 참석했던 첫번째 교회 모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곳에는 6명의 일반 회원과 선교사 2명이 있었다. 그 해 말에 그는 아내 빌리파와 함께 침례를 받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방부 대회에 참석했다. 그 모임에는 50명이 있었다.

“교회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라는 것을 나타낼만한 표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건물에서 만났고 열악한 주변 환경과 지극히 부적절한 시설 속에서 참가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스테이크 축복사이며 한때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정전장이었던 파우리 형제의 말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참되고 감미로운 영이 우리가 마치 젓먹이 어린 아이인양 인도하여 걸음을 걷게 하고 마침내 똑바로 서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속에 자라나는 간증으로 인해 겸손해졌습



남아프리카 회원들이 테이블 마운틴이 보이는 시그널 힐에 모여 남아프리카 교회 150주년을 기념한다.

니다.”

제시 헤이븐 장로와 레오나드 엘 스미스 장로 및 윌리엄 에이치 워커 장로가 배를 타고 케이프 타운에 도착하여 남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150년이 되었다. 그들은 1853년 4월 19일에 도착했고 5월 23일에 공식적으로 교회를 희망봉에 조직했다. 불과 3개월 만인 1853년 8월 16일에 교회의 첫번째 지부가 희망봉에서 6.5 킬로미터 떨어진 모브레이에 조직되었다. 1855년에는 희망봉에서의 교회가 6개의 지부와 126명의 회원으로 늘어났다.

초창기에 남아프리카는 정치적 분쟁과 불안에 헤쳐나가고 있었다. 더구나 많은 교회 회원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 하지만 초기 선교사들과 개종자들에 의해 놓인 기초 위에, 교회가 스테이크 10곳과 선교부 3곳에 35,000 명의 회원으로 성장했다.

2003년 4월 19일에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 스테이크 회원들 91명이 시그널 힐에 모인 것을 시작으로 최근 수개월 동안 회원들이 남아프리카 교회의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봉사 활동을 벌였다. 회원들은 해가 돋을 무렵에 모여 간증을 나

누고 스테이크장단의 제1보좌인 델빈 시 기디의 말씀을 들었다.

남아프리카 베드포드뷰 스테이크 베드포드뷰 와드 회원들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이즈에 감염된 가족과 어린이와 노인들을 치료하는 알렉스/타라 병원에서 150시간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7월 내내 계속된 봉사 활동에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가족들을 위해 음식 꾸러미를 싸고, 신권 정원회는 채소밭을 일궜다. 선교사들과 청소년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부활절 계란 사냥 활동을 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 스테이크 모브레이 와드는 점심과 케이크를 함께 나누면서 남아프리카에서의 첫번째 와드 조직 150주년을 기념했다.

“미래는 밝습니다.” 남아프리카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가 말했다. “우리는 모든 종족의 선한 사람들이 이 교회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 복음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큰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 장로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기사 제공: Church News

2004년 1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 호나 2004년 1월호에 게재된 함께 나누기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제언들이다. 이러한 제언과 부합되는 공과, 교육 및 활동을 위해, 이번 호의 어린이란 12~13쪽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참조한다.

1.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1895~1985)은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이 옳은가를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나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어린이 노래책, 187)를 부른다. 교실 둘레에 우리가 아는 것들에 대한 그림이나 낱말 띠를 놓아 둔다.(예를 들어 예언자, 경전, 부모, 계명, 기도) 어린이 두 명을 짝지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노래하는 동안, 그 노래에 맞는 그림을 찾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게 한다. 예를 들어, (가) 경전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찾기: 경전 그림. 말하기: 경전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행하기: 우리는 매일 경전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 (나) 기도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찾기: 경전 그림. 말하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다. 행하기: 우리는 매일 밤 낮으로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

2. 어린이들에게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의 기도에 관한 간증을 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어린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 참조 성경을 준다. 각 그룹이 참조 성경을 읽고 (가) 예언자는 누구이고, (나) 그가 어떤 어려운 선택이나 문제를 갖고 있으며, (다) 기도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지 찾게 한다. 그 이야기를 말하거나 연극할 어린이들

을 선택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보고 문제와 답을 듣게 한다. 유아반 어린이에게는 이야기를 나타낼 그림을 그리게 한다. 예: 요셉 스미스(요셉 스미스서 2:7~19), 모시아야(모시아야서 28:1~8), 이노스(이노스서 1:1~8), 야렛의 동생(이더서 2:14~25).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어린이들에게 이번 주에 매일 개인적인 기도를 하도록 권한다.

3.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몸이 성전이라 가르치고, 성전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가르친다. 복음 표준을 배우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몸의 안과 밖을 돌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표준을 나타낼 사물이나 그림을 선택한다.(예, 사과, 좋은 책, 단아한 옷을 입은 어린이) 칠판에 표준 가운데 하나를 적는다. 한 어린이를 뽑아 교실 밖에 나가게 하고 다른 어린이에게 사물을 숨기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표준을 반복해서 읽는 동안 밖에 있는 어린이에게 돌아와 숨긴 물건을 찾게 한다. 어린이가 그 물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린이들에게 더욱 크게 표준을 읽게 한다. 어린이가 그 물건에서 멀어지면, 어린이들에게 표준을 약하게 읽게 한다. 아이가 그 물건을 찾아내면, 이 표준대로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하게

한다. 표준을 덮고 다시 놀이하는 동안 어린이들에게 표준을 암송하게 한다. 다음 표준을 붙이고 놀이를 반복한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의 경우, 한번에 두 가지 표준을 할 수도 있다. 그런 후 노래나 찬송을 부르며, 세 가지 물건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게 한다. 음악이 끝나면, 물건을 든 어린이들에게 그 물건에 해당하는 복음 표준을 말하게 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배운 표준을 가족들 앞에서 암송하도록 격려한다.

4. 예언자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어떻게 다시 가족으로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최근 연차 대회에서 주어진 권고의 말씀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예언자의 권고를 가르친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와 나이 어린 어린이를 함께 짝지어 준다. 어린이들에게 예언자의 권고와 일치하는 경전 참조 구절을 찾아보고 주어진 권고에 해당하는 사물을 그리게 한다. 어린이들은 그림을 보여주며 몸짓으로 예언자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을 보이는 동안 다른 어린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게 한다. 예언자에 관한 노래나 찬송을 부른다. 예언자의 권고를 따르므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다는 축복에 관한 간증을 나누는 다. ■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사랑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 나의 이름은

이름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 나의 가족은

가족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 나의 신앙은

신앙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4. 나의 사랑은

사랑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03년은 우리 모두에게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실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지상에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복음을 통해 얻은 소망과 신앙으로 영생이라는 축복에 대해 확신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주님의 사업을 더욱 진척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2004년 한해도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욱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의로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을 행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고 연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친구와 이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함께 일할 때 하늘도 그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요시히코 기꾸찌

윌리엄 알 워커

고원용

씨앗이 된 소년의 이야기

2003년 가을, 낯익은 레이아웃의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발신 공문 하나가 신권 지도자들에게 배부되었다. 이 공문에는 전임 선교사들이 청소년 침례에도 역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단히 큰 선교 정책의 변화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아호나 편집팀 앞으로 1974년도에 발행된 교회 영자 신문 '처치 뉴스' 사본 한 페이지가 전달되었다. 올 해 지역 소식에서 청소년 개종에 관한 기사를 신뢰, 이 신문 기사에 나오는 청남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다뤄보라는 지역 회장단의 지시와 함께 ...

기사와 함께 실린 흑백 사진에는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광경이 들어 있었다. 하얀 모시 적삼을 차려 입고 긴장한 듯 반듯하고 어색한 모습의 할머니들과 단정하게 교복을 차려 입은 청소년들, 70년대 특유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 그리고 중년의 남성, 자연스럽게 줄지어 앉은 아이들, 최소한 3대 이상으로 보이는 가족들이 사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늘 그렇듯 빛 바랜 사진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 시절을 추억하게 한다. 그러나 이 사진이 과거일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진 속의 인물들 중 여러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얼굴이든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어느 부분이라도 그들을 닮은 이들이 훨씬 더 많은 수로 번성하여 삼십 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으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무엇에든 배경이 있기 마련이듯, 이 기사도 한 청남의 활약상을 기사의 배경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10개월 전에 침례를 받은 한국 서울 스테이크 서울 와드의 최동현 형제가 지금껏 스물 세 명을 교회로 인도했다. (중략) 두 아들이 십대였을 때 막내 아들인 경환이 당시 서울에 있는 LDS 종교 교육원에 참석 중이던 삼촌 이영직을 통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환은 곧 세미나 가정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부친 최동현 형제는 이를 계기로 교회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중략) 최 형제는 큰 아들인 윤환을 교회로 보내 그곳에 대해 알아보게 했다. 윤환 또한 몇 번 교회에 참석한 뒤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침례 받기를 원했다. 최 형제는 큰 아들이 전해 주는 교회에 관한 우호적인 소식에 큰 인상을 받게 되었고, 교회에 참석해 선교사들과 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다.(이하 생략)"

1975년에 김볼 대관장님과 함께한 한국 대회(위 기사의 주인공이고 최동현 형제가 침례 받은 지 1년 8개월에 후에 이 대회가 열렸다)에서 "최동현 형제를 통해 교회에 들어온 분들은 모두 일어나 보세요."라



1974년 처치 뉴스에 실린 최동현 형제 가족의

개종 관련 기사. "개종자가 복음 널리 전파"라는

제목으로 최동현 형제 가족의 개종과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는 총관리 역원의 요청에 120여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바로 그 최동현 형제를 이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한 인물이 바로 막내 아들 최경환 형제다. 당시 그는 열다섯 살의 소년이었다. 그런 그도 이제는 사진 속의 그의 부친과 비슷한 중년이 되었다. 화와이에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그와 정말 어렵게 전화 통화했다. 의외로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그다지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 했다.

그의 영향으로 개종한 가족 및 친지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복음 가운데 양육하고 그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며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세대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의 역할이 그의 생각만큼 작았을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그의 가족 및 친척들 중에서 여섯 명이 선교 사업을 했고 한 명이 현재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 일곱 명의 선교사들을 통해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고, 또 그 개종자들을 통해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겠으며, 더구나 1975년도 한국 대회 당시 총관리 역원의 요청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던 120여 명의 회원들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얼마나 많은 수로 늘어나 있겠느냐는 산술적인 추측값을 내밀어도 그는 그저 30년 전의 사진에서와 같이 부친 뒤에 숨어 있는 한 명의 아들로 머물려고 하는 듯 했다.

그런 그의 담담한 기억과는 달리, 그의 형이자 안양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관리 본부 대표이기도 한 최윤환 형제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던 동생에게 자신이 범했던 실수에 대해 아직도 미안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던 저로서는 어떻게든 동생이 이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야단도 치고 심지어 체벌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동생이 저를 매우 어려워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의지만큼은 꺾지 못했었던군요." 이랬던 최윤환 형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친과 함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었고, 지금은 우직스러운 교회 회원 중 한 명이 되어 있다. 그런 가족의 영향 때문일까. 지금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최윤희 형제의 큰아들은 만19세가 되자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먼저 전임 선교사의 길을 택하였다.

자신의 신앙에 고집스러웠던 청년과 그 아들의 신앙을 무시해 버리지 않고 눈여겨 보았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신뢰했기에 주저없이 교회로 들어왔던 가족들의 과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희망 있는 미래로 꽃피고 열매 맺는다. 가치관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도, 과거보다는 가능성의 미래를 훨씬 더 많이 가진 고집스러운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다정스럽고 신뢰 가득한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다.



하와이 호놀룰루 와드 앞에서 찍은 최윤희, 최경환 형제의 가족 사진. 맨 뒷줄의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이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 영향을 미친 최경환 형제다.

* 리아호나 편집팀에서는 청소년기에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들의 간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리를 마치며 ...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정재진 형제



저는 지난 4년 동안의 세미나리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니 보람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많습니다. 처음 세미나리를 하던 해에는 잘 이해도 안되고 흥미도 떨어져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

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기숙사 사감 선생님께서 교과 관련 외의 책은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밤에 침실에서 스탠드를 켜고 경전과 교재를 읽기도 했지만, 예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세미나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현대 교회사와 말일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공부하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기록을 보면서 어려움에 신앙으로 대처하는 법, 역경을 이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일에 대한 예언은 두렵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신앙을 키울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미나리를 배우면서 경전을 읽기가 더욱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 종교 교육원 과정을 공부하고 전임 선교사로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교회를 우선 순위에도 두고 생활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고 믿고 있으며 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님과 지도자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허효진 자매



제가 처음 세미나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과 부모님의 권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제 스스로 새벽 세미나리를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졌을 뿐만 아니라 점점 제 행동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더 동생들을 존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세미나리를 오래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제 자신이 이렇게 변한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세미나리 새벽반에 나가지 않고 그냥 안식일 모임만 참석했다면 이렇게 변화하고 깨닫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막연히 생각했던 선교 사업이나 성전 의식 등을 다시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고,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세미나리를 마칠 때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자!' 하고 다짐을 했었는데 이제 졸업할 것을 생각하니 이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신앙의 단단한 틀이 되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잘 다니게 도와주신 부모님과 언제나 훌륭한 공과를 해주신 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니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오븐 와드 송평중 형제의 가족은 2년 여 동안 한번도 한 자리에 모여 본 적이 없다. 송평중 형제의 큰아들 송원상 장로는 지금 미국 뉴욕주에, 둘째 송원준 장로는 유타주에, 막내 송원철 장로는 캘리포니아주에, 그리고 송평중 형제 내외는 서울에 각각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가족은 하나의 커다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 사업'이다. 송평중 형제도 현재 서울 서선교부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으니 선교사 가족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 이들 가족은 일주일에 한번씩 안부와 응원을 담은 편지를 주고받는 데 미국과 한국을 오갔던 편지 몇 장을 소개한다.

사랑하는 원삼아

시간이 흘러 이 땅의 계절은 또 바뀌어 겨울이 깊어만 가고 있구나. 그 동안은 전혀 하나님의 사업에 정진하고 있는 지? 널 선교부로부터 보내기 위해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구나. 아버지는 네 편지를 받을 때마다 한없이 감사하고 있단다. 아버지 어머니는 너희 삼 형제가 주님의 사자로써 하나님의 복을 전파에 정진하고 있기에 나날이 편히 지내고 있고, 성전 봉납도 매우 충실히 하고 있단다. 나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가족을 저축하여 온 것을 항상 고맙게 여기고 있다. 계획을 세워 지출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면 좋은 습관을 평생 갖게 되어 앞으로는 가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중략) 2년이라는 선교 사업은 마하톤과 같단다. 잘한다고 자만하거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날 버텨내기 타고 귀가하는 날까지 너 자신과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일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한결기에 몸조심하고 그곳 경험들이 담긴 편지 기다리며 아버지 어머니는 너와 동반자, 그리고 구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마. 이만 줄인다. 너를 아버지 씀

잘 지내셨죠? 저도 이곳 산타모니카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어는 ...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동은 후 구도자를 찾지 못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조금 더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간구 드리고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서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정말 제가 주님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한 주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소식을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송원철 장로



송평중 형제 가족. 왼쪽부터: 송원철 장로, 송원준 장로, 송원상 장로, 송평중 형제, 양계영 자매.

부르님께

별일 없으시지요? 저도 여기 브루클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뜻밖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동안 제가 봉사하던 와드에서 또 한번의 침례식이 어제(1월5일)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침례를 주었던 지니 이후에 또 3개월 동안 트롬펄던 타나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타나를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갈등했었습니다만 결국 침례를 받았다고 결심하게 되어서 동반자인 스피스 장로가 침례를 주었습니다. 특히 어제 성찬식에서는 지니가 간증을 하면서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전에 저랑 동이었던 메릴도 저에게 고맙다고 간증하면서 완전히 와드에서 스타가 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겸손하려고 합니다. 부르님께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마들 원상 올림

부르님께

안녕하세요? 송원준 장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해에는 제가 가르친 구도자가 침례를 받은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Saprina(사프리카)라고 스프링필드의 구도자인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나 온 구도자였습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침례식이 가장 영적으로 훌륭한 모임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이 영기가 안 좋은지 저의 많은 구도자들이 일차리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언제든지 구도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는데 구도자들 가정에서는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구도자들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구할 수가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입니다. 여전히 동반자와 저는 10명 침례를 꼭꼭로 하루를 힘하게 열었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다르지만 동반자 하기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르님도 건강하세요. 송원철 장로와 송원상 장로에게도 자주 연락하고 있고 너로 너로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송원준 장로 올림

선한 영향 주는 삶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배운호 형제가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웃에게 신장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11월, 서울 삼성 병원에 입원한 배 형제를 찾았을 때는 이미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떻게 이 방법을 택했느냐는 질문에 배운호 형제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이웃들에게 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 건강을 나눠주기로 한 것이죠.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킨 덕에 건강 하나는 자신있거든요. 그리고 기증하기로 결정하고 난 후 신부전증 환자들이 건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에 한번씩 모든 피를 병원에 와서 걸러내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몸이 건강한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술 전에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신권 형제들에게 축복을 받

았고, 수술 후 통증을 한번도 느끼지 못했다는 신권 축복에 대한 강한 간증도 덧붙였다.

한편 배운호 형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의 바로 옆 병실에는 신장 수혜자의 배우자가 입원해 있었다. 배운호 형제의 기증에 감동을 받은 수혜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취재 당시에 이미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중이었다. 두 번째 신장 수혜자의 배우자 또한 기증 의사를 밝혀 또 다른 신부전증 환자가 기증 받게 되었다.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 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배운호 형제. 퇴원전에 병원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이다.

지역소식

노인슈안터 장로와 함께 하는 노변의 모임

칠십인 회장단의 데니스 비 노인슈안터 장로가 지난 2003년 11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노변의 모임에 함께했다. 11월 9일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에서 열린 노변의 모임에는 노인슈안터 장로와 북아시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노인슈안터 장로.

아 지역 회장단의 기꾸찌 장로, 고원용 장로 등 이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노인슈안터 장로는 2000년에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 받았으며 리아호나의 편집인이기도 하다. “미국 어느 지역의 스테이크 대회를 방문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섰을 때 일입니다. 그곳 계산대에는 여러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명함통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문득 거기에 적혀있지 않는 다른 나라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왜 폴란드 말이 없죠?” 종업원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옆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어떤 여자 손님이 저에게 폴란드 사람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자 손님은 폴란드인이었고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물문경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선교부장님 차안에 물문경이 한 권 있어서 그 분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 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단신

■ 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 김성후 자매(15)가 법무부에서 주최한 제4회 청소년을 위한 희망 콘서트에서 현대 무용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홍세라 기사 제공)

■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송지예 자매(15)가 대한민국 통일 교육원에서 주최한 글짓기 대회 시 부문에서 중등부 1등을 차지했다.(이계원 기사 제공)

■ 서울 서 종교 교육원 태버나클 축제가 신임 독신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렸다.(남경희 기사)

■ 안양 스테이크에서 뱅거터 선교부장 내외와 하나로 중창단이 함께 하는 노변의 모임이 지난 11월 16일에 열렸다.(박라철헤 기사)

■ 한국 말일성도 기억의 책(충청 지역 중심)의 저자인 최수영 형제와 함께 하는 노변의 모임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열렸다.

■ 제2회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이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 청소년 및 독신 회원 담당 역원들과 함께 활동 중심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그 때 왜 하필 제가 폴란드에 대해 말했을까요? 선교부장님 차에 있던 물몬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 분이 물몬경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선교사들에게서 물몬경과 복음에 대해 배우십시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백길환 기사 제공)

캐나다 한인 성도들 스테이크 대회에서 합창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인 성도들이 지난 2003년 11월 9일, 밴쿠버 스테이크 대회에서 특별 음악을 찬송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40여 명의 한인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합창단을 조직하여 음악 순서를 준비했다. 아직 한인 지부가 없는 캐나다에서 와드와 스테이크의 경계를 넘어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이다. 합창단은 허충석 형제의 지휘와 윤선희 자매의 반주로 'Consider the Lilies(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와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두 곡을 불렀다.(이현실 기사 제공)

대회 후 한자리에 모인 캐나다 한인 성도들. 현재 밴쿠버 지역에는 100여 명의 한인 성도들이 있고 한인들의 선교 사업을 전담하는 전임 선교사 10명(장로 7명, 자매 3명)이 봉사하고 있다.



교보 생명, 브리감 영 대학교에 도서 기증

교보 생명에서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해롤드 비리 도서관에 2,20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지난 2000년 4월 연차 대회에 참석했던 고원용 장로는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관련 도서가 미비하고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한국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보급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최옥환 형제 등 여러 회원들의 도움으로 국내 출판사들과 기업들을 접촉한 결과 교보 생명에서 도서



이번에 기증된 한국 관련 도서 서고 앞에 선 해롤드 비리 도서관 큐레이터 게일 킹 자매. 오른쪽은 아시아 특별 전시관에 걸려 있는 교보생명 회장 고(故) 신용호씨의 초상화.

구입 비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으로 브리감 영 대학교의 마크 피터슨 교수가 연구와 강의에 필요한 책 2,000여권을 직접 선정하였고, 그 외 김영사(대표: 박은주)와 위즈덤하우스(대표: 김중옥) 출판사에서 책을 기증하였다. 또, 월전 장우성 화백은 자신의 작품 집을, 미국에 있는 차종환 형제 또한 자신이 저술한 책을 기증하였다. 해롤드 비리 도서관 아시아 지역 전시관에는 이번 기증을 기념하는 교보생명의 창립자 사진을 포함한 특별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다.



수여식을 마치고 나란히 선 LG 전자 부사장 김영기 형제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고원용 장로, 브리감 영 대학교 관계자들.

브리감 영 대학교 LG전자 부사장 김영기 형제에게 특별상 수여

브리감 영 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인 네드 힐 원장은 브리감 영 대학교를 대표하여 LG 전자 부사장인 김영기 형제에게 특별 지도자상 (Outstanding Global Leader Award)을 수여하였다. 이로써 김영기 형제는 얼마 전에 총장으로 역임하였던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자가 된 것이다. 김 형제는 LG 전자 부사장으로서 회사와 브리감 영 대학교의 우호 관계 발전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100여 명의 LG 그룹 임원과 간부들은 브리감 영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김 형제는 그룹의 인사 담당자로서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도록 지원하였고 이로써 교화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 행사에 참석한 고원용 장로는 “이번 행사는 브리감 영 대학교를 국내 최대 그룹 중의 하나인 LG 그룹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더욱 많은 국내 기업들과 브리감 영 대학교가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스테이크 선교사 훈련원

광주 스테이크에서 모의 선교사 훈련원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 스테이크 선교사 훈련원은 “잘 준비된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르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매주 목요일에 광주 종교 교육원에서 열리고 있다. 훈련은 스테이크 내의 귀환 선교사들이 종교 교육원의 교재를 이용하여 기초 복음 원리 교육, 교수법 교육과 실습 등을 하며 3개월 동안 이어진다. 조용환 광주 스테이크장은 “이 과정에 참여한 회원들은 선교사 훈련원을 통해 준비된 회원들이 자신의 전임 선교 사업 준비를 하는 동시에, 회원들

앞에 모범이 되고 자극제가 되어 회원 선교 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라며 훈련원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김논산 기사 제공)



2003년 11월, 광주 선교사 훈련원 제1기생들이 훈련을 마치고 교사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청녀 축제

1869년 11월 28일에 ‘협동 절제회’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청녀회가 134번째 기념일을 맞아 전국의 청녀들과 역원들이 함께 청녀 축제를 열었다. 각 지역 스테이크 센터에 모인 청녀들은 청녀 가치관 및 개인 발전 기록부에 대한 공과와 활동을 즐기며 청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과 사명을 재인식했다.

광주 스테이크 청녀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빛난다”는 주제에 따른 여러 활동으로 모든 청녀들이 함께 하는 축제가 되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청녀들은 언어와 복장에 관한 ‘개인 발전 기록부 가치관 활동’을 하며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녀들은 우수 작품 전시회를 열어 한 해 동안 ‘개인 발전 기록부 가치관 활동’으로 만든 작품을 전시했다. 수제치마, 정물화, 봉숭아 관찰기록, 십자수 등이 전시되었고, 개인 발전 기록부 가치관 활동이었던 노래와 영상을 발표가 이어졌다.

안양 스테이크 청녀들은 각 와드별로 준비한 공연 발표를 했는데 금천 1와드에서는 청녀회 창립 배경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상영했고, 산본 와드는 ‘오 시온의 자매여&우리들은 니파이 처럼’을 청남과 함께 노래하여 많은 감동을 주었다.

전주 스테이크 청녀들은 각 와드별로 재능 발표를 했는데 청남 청녀들의 스포츠 댄스 시범과 피아노 연주 등 풍성한 순서가 이어져 참석자들을 즐겁게 했다.

청주 스테이크 청녀들은 각 와드 감독단과 청녀들이 조를 나누어 스파게티와 떡볶이, 쿠키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감독단과 요리’를 이란 활동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남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녀들의 축제를 함께 즐기며 축하해 주었다. (남경희, 박라헬, 오경곤, 황선아 기자, 김논산, 이선문 기사 제공)



청남들과 함께 쿠키를 만드는 청주 스테이크 청녀들

어린이를 위한 음악 세미나

안양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11월 22일에 초동회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세미나를 열었다. 모임은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초동회 어린이들에게 각종 악기 연주를 보여주며 악기에서 소리나는 원리에 대해 알려 주었고, 2부에서는 음악 청정법과 음악이 주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박경렬 기사 제공)

청주 시민과 함께 한 로버트 할리 초청 강연회

지난 11월 21일 저녁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에서 로버트 할리 형제의 강연회가 열렸다. '영어 교육과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강연회에는 250여 명의 청주 시민들이 참석하였는데, 할리 형제는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행복의 여섯 가지 요소'를 열거하며 교회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간증했다. 충북 대학교 영어 교육과에 재학 중인 정동근씨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듣는 것도 유익했지만 행복의 요소에 대한 말씀이 특히 좋았어요."라며 참석 소감을 말했다. 청주 스테이크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한달 전부터 청주 시내에 직접 포스터를 붙이고 플래카드를 걸며 이번 강연회를 준비하였다. 또한 강연회장 입구에 교회 보도 자료와 교회를 소개하는 소책자, 비디오 등을 전시하며 청주 시민들에게 교회를 알리고자 노력했다.(황선아 기자)



참석자 일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로버트 할리 형제

안양 스테이크 바운티풀 축제

안양 스테이크 독신 회원들이 지난 11월 15일 안양 와드에 모여 안양 스테이크 바운티풀 축제를 열었다. 독신 회원들 간의 우정 증진과 저활동 독신 회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2개월 동안 준비해온 이번 모임에서는 안산 와드의 플럿 합주와 추억의 개그라는 콩트, 마당놀이, 흑부리 영감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흥을 돋구었다.(박라헬 기자)

대전 선교부 선교사들 우정 증진 모임 열어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선교사들이 준비한 할로윈 축제가 열렸다. 100여 명의 구도자와 영어 회화반 반원들, 그리고 회원들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서양 풍습을 즐기며 우정을 나누었고 처음 교회를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 날 처음으로 교회에 온 김미정 자매는 이후 선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지난 12월 7일 상당 와드에서 침례를 받아 화제가 되었다.(황선아 기자)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감독: 김태기(전임: 박진수)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 지부장: 윤세영(전임: 이기형)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67기 5명/해외 4명



김영민

청주 스테이크
제천 지부
서울 선교부



최정란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서울 서 선교부



박은경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오정운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미국 애너하임 선교부



백수진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대전 선교부



이희영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우승현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부산 선교부



나석권/송필녀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오륜 와드
미국 모리스타운
선교부

바로 잡습니다

지난 12월 호 지역 소식 9쪽 "힘찬 세상 다리가 되어" 기사에서 대한 적십자사 사무총장의 이름을 김영구에서 이영구로 바로 잡습니다.